

# 신용카드 이용여부에 따른 대학생 소비자의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 Money management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credit card usage

김효정

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Kim, Hyochung

Dept. of Family & Consumer Sciences, Inje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college students' money management behaviors according to credit card usag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81 college students in Busan and Gyeongnam areas by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equencies, Cronbach's Alpha, factor analyses,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by SPSS WINDOW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redit card usage group and non-usage group in the means for future preparation, stingy attitude, and planned expenditure.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ean of money management behaviors. Second, for the credit card usage group, the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money management behaviors included sex, grade, experience of consumer education, father's occupation, monthly household income, future preparation, stingy attitude, methods of emotional change, planned expenditure, and negative recognition. On the other hand, for the non-usage group, grade, experience of consumer education, father's occupation, way of success, future preparation, stingy attitude, planned expenditure, and conditional permission were significant. These results imply that financial management education including values about money and consumption patterns should be conducted.

Key Words : Money management behaviors, College students, Money beliefs, Attitudes towards consumer credit

### I. 서론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하여 개인의 신용부담 능력이 향상되고 소비형태와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소비자신용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짐에 따라 이 부문에 대한 개발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신용의 확대는 소비자의 과잉여신 및 과량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 및 개인파산의 급증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신용과 관련하여 신용불량자 중 젊은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이들은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계층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것은 젊은 연령층의 소비자들이 올바른 신용카드에 대

한 사용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가 어떻게 되는지,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며, 자신의 신용관리는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은행연구소(2002)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대 소비자 중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비율은 전체응답자의 36%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사회에 적응해 나가기 위한 금융 지식능력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YMCA(2001)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 928명 중 40.7%인 378명이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어 무소득 대학생의 신용카드 보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응답자 281명 중 20.8%가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경험이 있었으며 신용불량요건과 연체이자에 대하여 각각

\* 본 논문은 2003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Kim, Hyochung

Tel: 055) 320-3240, Fax: 055) 321-9550

E-mail: homehyo@inje.ac.kr

41.2%, 39.1%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20대의 젊은 세대들이 신용관리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금융거래를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젊은 세대들을 위한 소비자신용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합리적인 사용에 대한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재무관리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계재무관리의 가장 중요한 행위 주체로서 주부를 대상으로 한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연구들, 또는 중·고등학생의 청소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전관리행동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걸쳐있는 대학생 소비자는 부모의 간섭없이 거의 독자적으로 소비지출을 결정할 수 있는 시기로, 특히 이 시기에 형성된 소비지출의 패턴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성인이 된 후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경자, 2003)는 점에서 소비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소비자들의 재무관리행동을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미래 소비자의 주역을 담당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무관리행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재무관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대학생 소비자의 신용사용은 경제적 특성상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특징화될 수 있고(김정훈, 2002), 최근에는 대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학생 소비자들의 재무관리행동을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집단과 이용하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재무관리행동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각각 살펴보았다.

## II. 선행연구의 고찰

### 1. 대학생 소비자의 특징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청소년을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발달심리학에서는 사춘기에 시작하여 그 이후 대략 10년 정도, 즉 12~13세에서 20~23세경까지를 청소년기로 규정하고 있다(유경환, 1984). 따라서 대학생 소비자들은 발달단계상 후기 청소년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소비자들은 부모로부터 독립된 소비자행동을 하게 되고, 부모나 학교 선생님보다는 또래의 의견을 더욱 중요시하며,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과시소비, 모방소비, 충동구매 등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소비행동

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손상희(1997)는 청소년의 소비행태의 특성으로 첫째, 개성추구와 유행추종, 둘째, 감각적·외모지향적 소비, 셋째, 즉흥적·충동적 소비, 넷째, 소비의 향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용돈을 단순히 받아서 필요할 때 쓰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중·고등학생과는 달리 대학생이 되면 우선 자신 스스로도 돈을 벌수도 있고, 부모의 간섭없이 무엇을 살 것인가와 어느 항목에 얼마를 쓸 것인가를 거의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시기이다. 또한 대학생은 비슷한 연령층이나 전후의 연령층에게 소비준거집단으로서 또는 소비모델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대학생층을 겨냥하여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서경의, 1997).

요즘의 대학생 소비자들은 대부분 물질적 풍요와 신용이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자라 재무계획을 세우거나 소비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Ritzer, 1995), 이 시기에 형성된 소비지출 패턴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성인이 된 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대학생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재무관리행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 2. 재무관리행동 관련 선행연구

#### 1) 재무관리행동의 개념 및 영역

임정빈·조미환·이영호(1995, 1998)와 이선형·이연숙(1997)은 재정문제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차원으로 재무관리행동을 정의하였고, 이기준 등(2000)은 현재 또는 미래의 소득 자산을 증대시키고 보전하여 가계가 기대한 생활양식에 적합한 재무목표를 달성해 가는 전 생애에 걸친 과정으로, 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재무목표를 설정하며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며 점검,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행동을 재무관리행동이라고 하였다. 김경자(2003)는 (1) 자신의 소득과 지출, 저축에 대한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2) 자신의 삶의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3)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재무행동계획을 세우고, (4) 설정된 재무계획을 실제로 실행하고, (5) 수행한 재무행동계획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다섯 과정을 재무관리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무관리는 독립적인 소득을 갖고 있는 미혼 직장인,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계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경우에도 단기 재무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대한 아르바이트 계획이나 자출절제 계획을 세우고 예결산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등의 재무관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무관리행동은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측정된다. 가계재무관리행동에 초점을 두고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홍향숙(1997)은 가계의 재무관리를 주택마련과 자녀교육비와 같은 구체적인 재무목표를 설정하여 이에 대한 계획과 수행으로 측정하였다. 이선형·이연숙(1997)은 목표설정, 소비표준설정, 예산책정, 소득과 비용의 평가에 대한 계획과 소비자 구매, 가계부 기록, 저축 및 투자, 소비자 권리행사, 소비습관 검토 및 평가, 유산분배계획과 유산분배의 수행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정운영·황덕순(2002)은 현금 및 지출관리행동, 차용관리행동, 세금관리행동, 위험관리행동, 저축 및 투자관리행동, 은퇴 및 유산계획행동으로 측정하였다. 국외 연구의 경우, Titus, Fanslow와 Hira(1989)는 재무관리와 관련된 실제적인 활동, 즉 예산수립, 가계부기록, 신용사용, 저축, 위기관리 행동을 측정하였고, Porter와 Garman(1993), Parrotta와 Johnson(1998)은 현금, 신용, 위험, 은퇴와 유산, 자본축적, 일반적 재무관리의 6가지 영역에 대한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하였다.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홍은실·황덕순·김미라(2001)의 연구에서는 금전사용 계획, 실행, 평가 및 저축행동을 금전사용행동으로 보았고, 김경자(2003)는 장·단기 재무목표의 여부, 저축이나 소비에 대한 구체적인 재무계획의 여부, 소득과 지출의 기록 및 평가여부에 대한 재무설계행동과 소득의 획득, 소득의 배분, 소비품목별 소득 배분, 신용관리행동을 재무관리행동으로 포함시켰다.

## 2)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

대학생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므로, 본 절의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 고찰에서는 대학생 소비자 외에, 중·고등학생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도 함께 고찰해보고자 한다.

우선 대학생 소비자의 재무관리행동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정훈(1993)은 금전관리 지식, 관리능력과 노력 정도, 정보수집에서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스스로를 높게,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금전관리과정을 잘 활용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감은 비교적 낮아 자신의 관리 내용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은실 등(2001)의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의 금전사용행동은 중간점수 이상으로 대체로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자대학생이 물질주의 가치 성향을 많이 보일수록 여자대학생의 바람직한 금전사용행동의 경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화폐를 불안의 원천이나 안전의 도구로

보는 경우 바람직한 금전관리행동을 하였고, 화폐를 감정충족의 도구로 보는 경우에는 바람직한 금전관리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경자(200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일반적인 재무목표 설정이나 재무계획 수립, 기록 및 평가 등의 재무설계행동은 그리 잘 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으며, 부모의 존도와 소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화폐태도는 재무설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화폐를 사회적 수단으로 간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일반적인 재무설계행동을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재무설계행동을 더 잘 하고 있었다.

한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금전관리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금전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일호, 1993; 김희선, 1995; 민경미, 1995; 백선옥, 1990; 양경순, 1993). 부모의 학력에 따른 청소년의 금전관리행동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금전관리행동 점수가 높았으나(이기춘, 1985),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금전관리행동 점수는 낮았다(백선옥, 1990). 부모의 직업은 청소년의 금전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어머니가 직업을 갖지 않는 경우 청소년의 용돈지출태도가 더욱 합리적이었다(한은하, 1991). 그리고 용돈의 크기가 적을수록 금전관리행동의 수준이 높았다(김희선, 1995; 민경미, 1995; 백선옥, 1990).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소비자의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성별, 학년, 월평균 용돈,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월가계소득, 화폐에 대한 태도를 선정하였다. 이를 변수 외에 소비자신용에 대한 태도도 독립변수로 고려되었는데, 이는 주부를 대상으로 빚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Lea, Webley와 Walker(199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금전관리능력이 빚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기 때문이며, 본 연구에서는 빚에 대한 태도를 좀더 포괄적인 개념인 소비자신용에 대한 태도로 대체하여 독립변수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은, 재무관리행동과 관련된 소비자교육 경험 여부를 대학생 소비자의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대학생 소비자들이 재무관리교육을 통해 재무관리와 관련된 소비자지식, 기능, 태도 등 소비자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재무관리행동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대학생 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집단과 비 이용집단의 화폐에 대한 태도, 소비자신용에 대한 태도 및 재무관리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대학생 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집단과 비이용집단의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각각 무엇인가?

#### 2.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자료는 부산 및 경남지역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되었다. 자료수집은 설문지를 배부한 후 스스로 기입토록 하는 자기기입식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2004년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설문지의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2004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부실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하여 481부의 응답이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 3.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김효정(1999), 백은영·정순희(1998), Davies와 Lea(1995), Lea 등(1995) 등의 관련 문헌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화폐에 대한 태도, 소비자신용에 대한 태도,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화폐에 대한 태도

화폐에 대한 태도는 백은영·정순희(1998)가 Yamauchi와 Templer(1982)가 개발한 척도와 Wilhelm, Varcoe와 Fridrich(1993)가 사용한 척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표 1> 화폐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1	2	3	4	5
과시적 수단	나는 때때로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자랑할 때가 있다.	.51					
	나는 최고급품을 갖기 위해 많은 돈을 쓰는 편이다.	.76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해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고급스런 물건을 갖는 경향이 있다.	.79					
	나는 가능한 한 가장 비싼 물건을 사는 편이다.	.73					
성공의 상징	나는 때때로 그들의 능력이나 성취와는 관계없이 나보다 돈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났다고 느낀다.		.49				
	나는 나보다 돈을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 같다.		.51				
	나는 돈이 성공의 궁극적 상징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65				
	나는 충분한 액수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다.		.57				
	나는 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늘 걱정하는 편이다.		.68				
	나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할 것 같으면 걱정된다.		.63				
	나는 돈이면 무슨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편이다.		.61				
미래에 대한 준비	나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한다.		.49				
	나는 돈을 빌려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61			
	나는 저축을 하는 내 모습이 자랑스럽다.			.77			
	나는 은행에 저축하고 있는 돈의 액수를 항상 알고 있다.			.71			
인색한 태도	나는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을 마련해두고 있다.			.77			
	비싼 물건을 살 때마다 꼭 속아서 사는 것 같다.				.53		
	나는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일단은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라고 말하는 편이다.				.70		
	나는 물건을 산 후에는 꼭 '다른 데서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텐데'하는 느낌이 든다.				.71		
	나는 미래를 위해서 일상용품을 구입하는 데도 인색한 편이다.				.55		
기분 전환의 수단	어떤 목적에서든지 원가를 살 때는 가격을 제일 먼저 고려한다.				.57		
	나는 기분전환을 위해 돈을 쓴다.					.76	
	나는 기분이 나쁠 때 돈을 쓰는 경향이 있다.					.67	
	나의 돈 지출계획은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70	
	신뢰도	.80	.81	.74	.68	.73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요인분석시 각 요인에 의해 설명된 분산백분율이 5%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요인의 수를 정하였는데, <표 1>과 같이 '과시적 수단', '성공의 상징', '미래에 대한 준비', '인색한 태도', '기분전환의 수단'의 5개 하위구조로 분류되었다. 각 요인들의 신뢰도는 과시적 수단이 .80, 성공의 상징이 .81, 미래에 대한 준비가 .74, 인색한 태도가 .68, 기분전환의 수단이 .73이었다.

## 2) 소비자신용에 대한 태도

소비자신용에 대한 태도는 Davies와 Lea(1995), Lea 등 (1995)이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요인분석시 각 요인에 의해 설명된 분산백분율이 5%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요인의 수를 정하였으며,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계획적 지출', '부정적 인식', '무절제 사용', '조건적 허용'의 4개 하위구조로 분류되었고 이들의 신뢰도는 각각 .73, .78, .69, .61이었다.

## 3) 월평균 용돈

월평균 용돈은 대학생이 부모나 기타 가족으로부터 받는 용돈 및 아르바이트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을 각각 기입토록 한 후 이를 합해서 산정하였다.

## 4) 소비자교육 경험 여부

소비자교육 경험 여부는 대학생이 재무관리행동과 관련된 소비자교육을 학교나 소비자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표기토록 한 후, 소비자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는 0점, 소비자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1점을 부여하였다.

## 5) 재무관리행동

본 연구에서 재무관리행동은 김효정(1999)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예산세우기, 쇼핑리스트 작성하기, 지출 영수증 보관하기, 소득과 지출 기록하기, 정규적으로 저축하기, 단기재무목표 세우기, 장기재무목표 세우기, 용돈 사용 후 평가 및 반성하기 등 8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척도로 측정한 후 이를 점수를 더한 후 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 소비자가 재무관리행동을 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DOWS로 분석되었는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재무관리행동 분석을 위한 각 변수들에 대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표차를 구하였다. 그리고 화폐에 대한 태도문항과 소비자신용에 대한 태도문항의 차원분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들

<표 2> 소비자신용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1	2	3	4
계획적 지출	사람들이 자신의 수입 내에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57				
	빚은 오늘날 생활양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sup>a)</sup>	.64				
	우선 지금 물건을 구매하고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sup>a)</sup>	.58				
	빚을 지는 것은 학생으로서 생활을 즐기게 하므로 좋은 것이다. <sup>a)</sup>	.67				
부정적 인식	빌린 돈은 가능한 한 빨리 갚아야 한다.	.62				
	나는 돈을 빌리는 것이 싫다.		.68			
	돈을 빌리는 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69			
	은행들은 학생들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69			
	학생들은 빚을 얻어서는 안 된다.		.68			
무절제 사용	좋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집에 머무르는 것 이 낫다.			.57		
	대부분 사람들은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산다.				.50	
	요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너무 쉽다.				.53	
	학생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76	
조건적 허용	일단 빚을 지게 되면 빚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68	
	내가 갚을 능력만 있다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도 괜찮다.					.81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돈을 빌려도 좋다.					.73
		신뢰도	.73	.78	.69	.61

<sup>a)</sup> '매우 그렇다' 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으로 재코딩(recoding) 하였음.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였다. 또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집단과 이용하지 않는 집단 간에 대학생 소비자의 화폐에 대한 태도, 소비자 신용에 대한 태도, 재무관리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결과, 부의 학력과 모의 학력의 상관계수가 높아( $r=.63$ ) 중회귀분석에서 부의 학력은 제외되었다. 그리고 중회귀분석을 위해 대학생 소비자의 성별(0=남, 1=여), 소비자교육 경험 여부(0=없음, 1=있음), 모의 학력(0=고졸 이하, 1=전문대졸 이상), 부의 직업(0=비전문직, 1=전문직), 모의 직업(0=비전문직, 1=전문직, 2=전업주부)은 가변수로 처리하였고, 다른 변수들은 원점수를 이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표 3>에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전체 대학생 소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조금 많이 표집되었으며, 학년별로는 2학년이 가장 많이 표집되었다. 월평균 용돈은 200,001원~300,000원 이하가 전체 응답자의 36.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00,0001원~200,000원 이하, 300,001원~400,000원 이하 순이었다. 그리고 재무관리행동과 관련된 소비자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8.9%이었다. 부와 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가 각각 65.5%, 77.3%였으며, 부의 직업은 비전문직 63.4%, 전문직 36.6%이었고, 모의 직업은 비전문직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수	항목	신용카드 이용집단 (n=135)		신용카드 비이용집단 (n=346)		전체 (n=481)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별	남	75	55.6	195	56.4	270	56.1
	여	60	44.4	151	43.6	211	43.9
학년	1학년	30	22.2	75	21.7	105	21.8
	2학년	54	40.0	137	39.6	191	39.7
	3학년	30	22.2	105	30.3	135	28.1
	4학년	21	15.6	29	8.4	50	10.4
월평균 용돈	100,000원 이하	12	8.9	28	8.1	40	8.3
	100,001원~200,000원 이하	24	17.8	73	21.1	97	20.2
	200,001원~300,000원 이하	45	33.3	131	37.9	176	36.6
	300,001원~400,000원 이하	21	15.5	57	16.4	78	16.2
	400,001원~500,000원 이하	9	6.7	35	10.1	44	9.1
	500,001원~600,000원 이하	6	4.4	14	4.0	20	4.2
	600,001원~700,000원 이하	9	6.7	4	1.2	13	2.7
	700,001원 이상	9	6.7	4	1.2	13	2.7
소비자교육경험 여부	없음	102	75.6	240	69.4	342	71.1
	있음	33	24.4	106	30.6	139	28.9
부의 교육수준	고졸 이하	84	62.2	231	66.8	315	65.5
	전문대졸 이상	51	37.8	115	33.2	166	34.5
모의 교육수준	고졸 이하	99	73.3	273	78.9	372	77.3
	전문대졸 이상	36	26.7	73	21.1	109	22.7
부의 직업	비전문직	90	66.7	215	62.1	305	63.4
	전문직	45	33.3	131	37.9	176	36.6
모의 직업	비전문직	48	35.5	124	35.8	172	35.7
	전문직	12	8.9	50	14.5	62	12.9
	주부	75	55.6	172	49.7	247	51.4
월가계소득	1,000,000원 이하	3	2.2	13	3.9	16	3.3
	1,000,001원~2,000,000원 이하	22	16.3	85	24.5	107	22.3
	2,000,001원~3,000,000원 이하	68	50.3	151	43.6	219	45.5
	3,000,001원~4,000,000원 이하	24	17.8	59	17.0	83	17.3
	4,000,001원~5,000,000원 이하	9	6.7	29	8.4	38	7.9
	5,000,001원 이상	9	6.7	9	2.6	18	3.7

35.7%, 전문직 12.9%, 주부 51.4%이었다. 월가계소득은 2,000,001원~3,000,000원 이하가 45.5%로 가장 많았고, 1,000,001원~2,000,000원 이하가 22.3%, 3,000,001원~4,000,000원 이하가 17.3% 순이었다. 한편 신용카드 이용집단과 비이용집단 간의 일반적인 특성 중 학년을 비교해보면, 신용카드 이용집단이 비이용집단에 비해 4학년이 조금 많이 표집되었으며, 월평균 용돈이 500,001원 이상인 비율은 신용카드 이용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용카드 비이용집단이 소비자교육을 받은 경험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월가계소득이 2,000,000원 이하의 비율도 신용카드 비이용집단이 더 높았다.

## 2. 신용카드 이용집단과 비이용집단의 화폐에 대한 태도, 소비자신용에 대한 태도,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비교

대학생 소비자의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들의 화폐에 대한 태도, 소비자신용에 대한 태도,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통계치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화폐에 대한 태도에서는 신용카드 이용집단과 비이용집단 모두 '미래에 대한 준비'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반면, '과시적 수단'의 평균값이 가장 낮았다. 즉 대학생 소비자들은 은행에 저축을 하거나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등 화폐를 미래에 대한 준비로 여기는 태도의 경향은 강한 반면, 화폐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남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경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와 '인색한 태도'에 대해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용카드 이용집

단은 비이용집단에 비해 '미래에 대한 준비'에 대한 평균값이 높은 반면, '인색한 태도'에 대한 평균값은 낮았다. 이는 지금 당장 돈이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물건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신용카드가 현재의 구매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대학생 집단은 비이용집단에 비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의 인색한 태도를 덜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소비자신용에 대한 태도에서는 두 집단 모두 '계획적 지출'과 '부정적 인식'에 대한 평균값이 비교적 높았고, '조건적 허용'에 대한 평균값은 가장 낮았다. 즉 대학생 소비자들은 수입에 맞춰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을 중요시하고, 지금 물건을 구매하고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는 것, 돈을 벌리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었고, 내 가족을 위해서 또는 갚을 능력이 있다면이라는 조건적인 상황에서 돈을 벌리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경향은 대체로 낮아, 전반적으로 소비자신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계획적 지출'에 있어서 두 집단 간의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신용카드 비이용집단이 이용집단에 비해 계획적 지출태도를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무관리행동의 평균값은 신용카드 이용집단의 경우 3.00, 신용카드 비이용집단의 경우는 3.04로 중간정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신용카드 이용집단과 비이용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4> 신용카드 이용집단과 비이용집단의 화폐에 대한 태도, 소비자신용에 대한 태도,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비교

변수	항목	신용카드 이용집단 (n=135)		신용카드 비이용집단 (n=346)		t 값
		평균 <sup>a)</sup>	표준편차 <sup>a)</sup>	평균 <sup>a)</sup>	표준편차 <sup>a)</sup>	
화폐에 대한 태도	과시적 수단	2.40	.83	2.36	.86	.47
	성공의 상징	2.78	.67	2.71	.68	.98
	미래에 대한 준비	3.42	.89	3.40	.77	.21*
	인색한 태도	2.69	.51	3.00	.59	-5.72**
	기본전환의 수단	2.75	.85	2.76	.88	-.17
소비자신용에 대한 태도	계획적 지출	3.65	.73	3.87	.68	-3.22**
	부정적 인식	3.52	.70	3.66	.78	-1.88
	무절제 사용	3.33	.66	3.39	.71	-.81
	조건적 허용	2.93	.83	2.91	.81	.31
재무관리행동		3.00	.82	3.04	.81	-.51

<sup>a)</sup>p<.05 \*p<.01

<sup>b)</sup>5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 3. 대학생 소비자의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대학생 소비자의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신용카드 이용집단의 경우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성별, 학년, 소비자교육 경험 여부, 부의 직업, 월가계소득, 화폐에 대한 태도 중 미래에 대한 준비, 인색한 태도, 기분전환의 수단, 그리고 소비자신용에 대한 태도 중 계획적 지출, 부정적 인식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학년이 높을수록, 소비자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아버지가 전문직에 종사하며 월가계소득이 많고, 화폐에 대해 미래에 대한 준비로 여기는 경향이 많으며 인색한 태도를 갖는 성향이 많고 기분전환의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적은 경우, 그리고 소비자신용에 대해 계획적 지출 태도와 부정적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대학생 소비자들은 재무관리행동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용카드 비이용집단의 경우에는 학년, 소비자교육 경험 여부, 부의 직업, 화폐에 대한 태도 중 성공의 상징, 미래에 대한 준비, 인색한 태도, 그리고 소비자신용

에 대한 태도 중 계획적 지출, 조건적 허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대학생 소비자들은 학년이 높고 소비자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아버지가 전문직에 종사하며 화폐를 성공의 상징으로 여기는 경향이 적으며 미래에 대한 준비로 여기는 경향이 많고 인색한 태도를 많이 보이는 경우, 또한 소비자신용에 대해 계획적 지출 태도와 조건적 허용 태도를 많이 보이는 경우에 재무관리행동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과 소비자교육 경험 여부는 신용카드 이용집단과 비이용집단 모두에게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년과 재무관리행동과의 정적인 관계가 나타난 것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로부터의 의존도가 점차 감소하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스스로 돈을 벌어들이는 기회가 증가하면서, 용돈을 잘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대학생들이 점차 수행해나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소비자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 소비자들이 재무관리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합리적인 재무관리행동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소비자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신용카드 이용집단의 경우 여학생이 남

<표 5> 대학생 소비자의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신용카드 이용집단(n=135)		신용카드 비이용집단(n=346)	
	b	$\beta$	b	$\beta$
성별 <sup>a)</sup>	2.37	.18**	-.51	.04
학년	2.64	.40***	1.04	.14**
월평균 용돈	1.07E-06	.12	1.04	.03
소비자교육 경험 여부 <sup>a)</sup>	3.90	.26***	2.37	.17**
모의 학력 <sup>a)</sup>	-1.04	-.07	1.63	.10
부의 직업 <sup>a)</sup>	2.18	.16**	1.87	.14**
모의 직업 <sup>a)</sup>				
전문직	-.64	-.03	-.96	-.05
전업주부	-.54	-.04	-5.50E-02	.01
월가계소득	1.02E-06	.22**	-4.10E-07	-.08
화폐에 대한 태도				
과시적 수단	-.21	-.10	-.26	.14
성공의 상징	3.28E-02	.03	-.21	-.17**
미래에 대한 준비	1.69	.39***	-.34	.16**
인색한 태도	.45	.21**	-.28	.15**
기분전환의 수단	-.60	-.23**	-.26	-.11
소비자신용에 대한 태도				
계획적 지출	.60	.31***	1.50E-02	.17*
부정적 인식	.38	.23**	-.12	.07
무절제 사용	.22	.09	-.30	.01
조건적 허용	-.23	-.06	-.47	.12**
상수	22.77		16.41	
R <sup>2</sup>	.35		.22	
F값	18.91***		6.41***	

<sup>a)</sup>p<.05    \*\*p<.01    \*\*\*p<.001

<sup>a)</sup>가변수로 처리되었음: 성별(0=남, 1=여), 소비자교육 경험 여부(0=없음, 1=있음), 모의 학력(0=고졸 이하, 1=전문대졸 이상), 부의 직업(0=비전문직, 1=전문직), 모의 직업(0=비 전문직, 1=전문직, 2=전업주부)

학생보다 재무관리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들(김경자, 2002; 김일호, 1993; 김정훈, 1993; 김희선, 1995; 민경미, 1995; 백선옥, 1990; 양경순, 1993)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화폐에 대한 태도 중 미래에 대한 준비는 신용카드 이용집단과 비이용집단에게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은행에 저축하는 액수를 알고 있거나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등 화폐를 미래에 대한 준비로 여기는 태도의 경향이 강할수록 대학생 소비자들이 재무관리행동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홍은실 등(200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대학생 소비자들이 화폐를 미래를 대비하는 도구로 여김으로써 이들이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여 단·장기 재무목표를 세우고 예산을 정하며 정규적으로 저축을 하는 등의 재무관리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화폐에 대한 태도 중 인색한 태도도 정적으로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색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화폐지출시 가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므로 비계획적으로 지출하기보다는, 계획적인 지출행동이 보다 많이 이루어지게 되어 재무관리행동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화폐에 대한 태도 중 기분전환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을수록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이 재무관리행동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홍은실 등(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분전환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경우 충동구매의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어 예산에 맞춰 지출을 하거나 쇼핑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용돈 사용 후 평가 및 반성하거나 단·장기 재무목표를 세우는 등의 재무관리행동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화폐에 대한 태도 중 성공의 상징은 신용카드 비이용집단에게서만 부적으로 유의하였는데, 돈을 성공의 궁극적인 상징인 것처럼 여기거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존경하는 경향이 많은 경우 타인의 이목이 가치판단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예산 내에서 지출계획을 세우는 등의 합리적인 재무관리행동은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소비자신용에 대한 태도도 대학생 소비자의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계획적 지출은 신용카드 이용집단과 비이용집단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자신의 수입 내에서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빌린 돈은 빨리 갚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등의 계획적인 지출을 중요시하는 성향을 보이는 경우 자신의 재무관리행동도 이러한 태도에 반영되어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신용카드 이용집단의 경우

소비자신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대학생들이 재무관리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돈을 빌리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신이 무계획적인 지출을 통해 남한테 돈을 빌리는 상황을 용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재무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춰 재무관리를 해나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조건적 허용은 신용카드 비이용집단에게서만 정적으로 유의했는데, 내 가족을 위해서 또는 잡을 능력이 있다면이라는 조건적인 상황에서 돈을 빌리는 것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재무관리행동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집단과 이용하지 않는 집단의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변수들은 학년, 소비자교육 경험 여부, 부의 직업, 화폐에 대한 태도 중 미래에 대한 준비, 인색한 태도, 그리고 소비자신용에 대한 태도 중 계획적 지출이었다. 이를 변수들 이외에 신용카드 이용집단의 경우 성별, 월 가계소득, 화폐에 대한 태도 중 기분전환의 수단, 소비자신용 대한 태도 중 부정적 인식이 유의하였다. 그리고 신용카드 비이용집단의 경우에는 화폐에 대한 태도 중 성공의 상징, 소비자신용에 대한 태도 중 조건적 허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집단의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 것 중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대학생의 경우 화폐를 기분전환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을수록 대학생들이 재무관리행동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김영신, 2004), 신용카드의 이용이 충동구매 및 과소비를 부추길 가능성이 많이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대학생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의 긍정적·부정적 기능과 함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V.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 소비자의 재무관리행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생을 신용카드 이용여부에 따라 이용집단과 비이용집단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각 이들의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자료는 부산 및 경남지역에 재학 중인 대학생 481명으로부터 얻었으며, 빈도분석, Cronbach's Alpha, 요인분석, t-test,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화폐에 대한 태도에서는 신용카드 이용집단과 비이용집단 모두 '미래에 대한 준비'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반면, '과시적 수단'의 평균값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와 '인색한 태도'에 대해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용카드 이용집단은 비이용집단에 비해 '미래에 대한 준비'에 대한 평균값이 높은 반면, '인색한 태도'에 대한 평균값은 낮았다. 한편 소비자신용에 대한 태도에서는 두 집단 모두 '계획적 지출'과 '부정적 인식'에 대한 평균값이 비교적 높았고, '조건적 허용'에 대한 평균값은 가장 낮았다. 그리고 '계획적 지출'에 있어서 두 집단 간의 평균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재무관리행동의 평균값은 두 집단 모두 중간정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둘째, 신용카드 이용집단의 경우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성별, 학년, 소비자교육 경험 여부, 부의 직업, 월가계소득, 화폐에 대한 태도 중 미래에 대한 준비, 인색한 태도, 기분전환의 수단, 그리고 소비자신용에 대한 태도 중 계획적 지출, 부정적 인식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용카드 비이용집단의 경우에는 학년, 소비자교육 경험 여부, 부의 직업, 화폐에 대한 태도 중 성공의 상징, 미래에 대한 준비, 인색한 태도, 그리고 소비자신용에 대한 태도 중 계획적 지출, 조건적 허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관리행동의 평균값은 신용카드 이용집단과 비이용집단 모두 중간정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신용카드 이용집단과 비이용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대중매체에서 대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대학생들보다 재무관리 행동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재무관리행동 점수가 중간정도에만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재무관리행동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재무관리행동과 관련된 소비자교육을 받은 경우 재무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무관리의 소비자교육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신용카드 이용집단 및 비이용집단 모두에게 있어 화폐에 대한 태도는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이 밝

혀졌다. 이는 대학생 소비자들이 재무관리행동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화폐에 대해 건전한 태도를 갖도록 가치관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재무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이 많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육들은 대부분 재산증식이나 용돈관리 등에 대한 부분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화폐에 대한 가치관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성인이 되었을 때 화폐에 대해 전전한 가치관을 가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금융교육의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로 화폐에 대한 가치관 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가치관은 단시일 내에 변화되기 어려우므로 어렸을 때부터 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신용에 대한 태도도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많은 대학생들이 소비자신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신용은 장차 갚기로 하고 현재 현금,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일종의 계약행위로, 미래의 소득을 현재화하여 사용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만족을 극대화시키고 가정의 재정부담을 감소시켜 재정관계에 융통성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음을 대학생들에게 인지시켜 소비자신용을 무조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혁명하게 소비자신용을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부산 및 경남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재무관리행동의 측정에 있어서 8가지 행동을 합하여 구하였는데, 후속연구에 있어서는 이들의 재무관리행동을 구분하여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재무관리행동, 대학생 소비자, 화폐에 대한 태도, 소비자신용에 대한 태도

## 참 고 문 헌

- 국민은행연구소(2002). 20대의 소비·금융행태-현명한가. 20대 및 한·미·일 대학생의 소비·금융의식과 금융이용행태 조사결과 분석보고서.
- YMCA(2001). 대학생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실태 조사보고서.
- 김경자(2003). 대학생들의 화폐태도와 개인재무관리 실태. 소비문화연구, 6(3), 33-50.

- 김영신(2004). 대학생 소비자의 부채에 대한 태도와 현금 서비스 이용행동. *소비문화연구*, 7(4), 23-41.
- 김일호(1993). 고등학생의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훈(1993). 남녀대학생들의 금전관리 관련 행태와 인식. *소비생활연구*, 11.
- 김정훈(2002). 여대생과 주부의 돈과 신용에 대한 태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3), 165-174.
- 김효정(1999). 부부의 가계재무 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8), 91-102.
- 김희선(1995). 청소년의 용돈관리의식과 용돈관리 수행능력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경미(1995).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금전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선옥(1990). 청소년 소비자의 금전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은영·정순희(1998). 도시가계의 화폐태도유형과 지출행동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3), 47-60.
- 손상희(1997). 소비사회와 청소년 소비문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341-353.
- 서경의(1997). 대학생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경순(1993). 청소년의 금전관리의식과 소비행동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경환(1984). 청소년의 정서와 프로그램. 방송연구, 여름호.
- 이기준(1985). 소비자능력개발을 위한 소비자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준·박명희·윤정혜·손상희·김경자·성영애(2000). 소비자재무설계론. *학현사*.
- 이선형·이연숙(1997). 노인단독 가구의 가계재정관리와 경제생활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2), 31-43.
- 임정빈·조미환·이영호(1995). 농촌가정의 의사소통, 재무 관리행동, 가정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56-169.
- 임정빈·조미환·이영호(1998).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41-153.
- 정운영·황덕순(2002).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무건전성-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2), 115-130.
- 한은하(1991). 청소년의 용돈관리에 대한 실증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은실·황덕순·김미라(2001). 여자대학생의 물질주의 가치성향과 화폐에 대한 태도 및 금전사용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43-158.
- 홍향숙(1997). 가계의 재무관리와 재무목표달성을. *대한가정학회지*, 35(6), 157-171.
- Davis, E., & Lea, S. E. G.(1995). Student attitudes to student deb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6, 663-679.
- Lea, S. E. G., Webley, P., & Walker, C. M.(1995). Psychological factors in consumer debt: Money management, economic socialization, and credit us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6, 681-701.
- Parrotta, J. L., & Johnson, P. J.(1998). The impact of financial attitudes and knowledge on financial management and satisfaction of recently married individual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9(2), 59-74.
- Porter, N. M., & Garman, E. T.(1993). Testing a conceptual model of financial well-being.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135-164.
- Ritzer, G.(1995). Expressing America: A critique of the global card society. Pine Forge Press.
- Titus, P. M., Fanslow, A. M., & Hira, T. K.(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309-317.

(2005. 12. 31 접수; 2005. 02. 12 채택)